

내년 창립 30주년...광주 넘어 세계인의 비엔날레 돼야

광주비엔날레 달라져야한다 <하>

비시즌 위한 아카이브관 필요 지역 연계 대규모 프로그램 기획 파빌리온 20여 개국으로 확대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그동안 세계 5대 비엔날레로 평가받는 등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여타의 국제 비엔날레와 비교해 담론이나 이슈 제기 등에 있어 국제미술축제로서의 영향이나 위상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을 역임한 정준모 전시 기획자는 “광주비엔날레가 ‘비엔날레를 위한 비엔날레’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14회 전시는 잘 기획된 비엔날레라기보다 잘 만들어진 전시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에 따라 어떤 작품이 사회와 접점을 이루면서 이슈를 제기하거나 담겨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내년이면 창립 30주년을 맞는 만큼 광주비엔날레의 변곡점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주비엔날레가 광주비엔날레로만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창립선언문의 ‘5·18 광주정신을 예술로 승화하고 세계로 확산한다’는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광주정신을 광주에만 가둬두는 안된다’는 의미였다.

사실 30여 년간 광주비엔날레는 광주정신을 서사와 인문학에 예술로 승화시킨 눈에 띄는 대표작이 거의 없었다. 전두환이나 계엄군을 모티브로 역

명이나 민주화를 다룬 작품은 있었지만 은유와 상징을 매개로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예술적인 작품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다.

정 기획자는 “‘보고 화가 나는 작품’이 아닌 ‘보고 눈물이 나는 작품’이 이제는 나와야 한다”며 “광주비엔날레는 지키고 지탱하는 국제적인 미술 행사가 아닌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인의 비엔날레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물론 14회를 거쳐 오는 동안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우수한 인력들의 노고도 있었다. 광주비엔날레가 ‘소프트파워’로 자리매김 될 수 있었다는 데는 비엔날레와 관련 많은 이들의 수고도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비시즌 기간에도 비엔날레 유산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지역 문화계 인사는 “비엔날레가 2년마다 한번 개최되기 때문에 열리지 않는 해는 국내는 물론 세계 미술작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안타까웠다”며 “30주년이 되는 만큼 아카이브나 유산 활용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여 시즌, 비시즌 관계없이 비엔날레의 소중한 자산을 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엔날레 재단 관계자는 “오는 2026년께 새로운 전시관이 건립돼 아카이브관이 마련되면 비시즌에도 비엔날레 유산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실 비엔날레 창립 이후 전반적으로 미의식이 달라지고 ‘비엔날레 키즈들’에게 미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한 것 등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비엔날레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와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제14회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들이 출품 작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을 역임한 장경화 박사는 “광주비엔날레가 30주년을 계기로 하나의 변곡점이 되고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시 차원의 빅 이벤트를 추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며 “15회 비엔날레가 판소리라는 전통음악을 현대적 시각화로 구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만큼, 지역과 연계한 대규모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14회 비엔날레에서 존재감을 드러낸 국가별 파빌리온(특별관) 확대 필요성도 제기된다. 국외 유수 문화 기관이 참여한 파빌리온에 관람객이 이어지면서 비엔날레 기간 광주 전역이 시각 문화 현장

으로 변모했던 것은 고무적이다. 국립광주박물관, 무각사, 이이남 스튜디오 등 9곳에서 캐나다를 비롯해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9개국이 참여한 파빌리온은 미술의 도시 광주를 역동하는 동시대 미술 현장으로 엮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에는 파빌리온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여 개국으로 늘릴 방침이다. 시 차원에서 공간의 역사성과 장소성과 상응하는 파빌리온을 문화외교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한편으로 파빌리온을 20여 개로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작품 관리, 전시 관람과 관련 시나비

엔날레 차원의 점검도 철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폐막을 앞두고 양림동 포 파빌리온을 찾았다는 문화계 인사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인데도 전시실이 닫혀 있어 헛걸음을 했다”며 “파빌리온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향후 파빌리온이 확대되면 관리나 서비스도 그에 맞게 세심하게 이뤄져야 도시 전체를 미술 전시장으로 변모시킨다는 당초 의도가 차질없이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프랑스 코미디 거장 자크 타티의 작품을 만나다

광주극장·시네마테크, 13~31일 ‘회고전’... ‘축제일’ 등 10편

20세기 초 “시대를 앞서기에 고통받은 선구자”라는 평가를 받은 거장 자크 타티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극장과 광주시네마테크는 프랑스 코미디와 무성영화의 한 축을 담당했던 자크 타티 회고전을 13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자크 타티의 주요작품들을 상영하는 이번 회고전에는 6편의 장편 ‘축제일(1949)’, ‘월로씨의 휴가(1953)’, ‘나의 아저씨(1958)’, ‘플레이 타임(1967)’, ‘트래픽(1971)’, ‘퍼레이드(1974)’와 4편의 단편이 오를 예정이다. (작품별 상영 시간은 광주극장 주간 시간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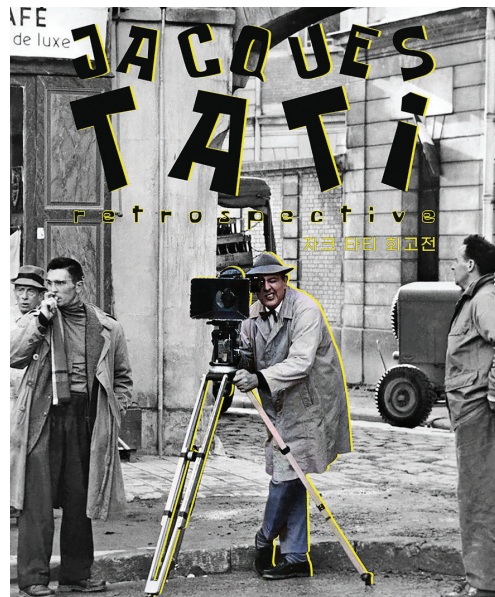
이번 회고전은 중점포에 파이프를 쓴 신사 ‘월로’가 처음 등장한 ‘월로씨의 휴가’, 많은 자원을 투자했음에도 당시에는 흥행에 지지부진했던 ‘플레이 타임’ 등을 볼 수 있다.

16일과 20일 각각 상영할 예정인 ‘자크 타티 단편선’ 시리즈도 이목을 끈다. 초기 마임연기에 빠져 영화에 입문했던 자크 타티는 마임 연기로 명성을 떨친 광대 람과 각본, 주연을 맡은 ‘즐거운 일요일!’을 개봉한 바 있다.

또 권투에 미쳐있는 농부를 그려낸 단편 ‘왼쪽을 주의하라’, 프랑스 시골 마을 우체부 이야기를 담은 ‘우체부 학교’,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포르자 바스티아’ 등도 기대되는 작품이다. 한편 29일에는 ‘M(2007)’, ‘형사(2005)’ 등을 연출한 이명세 감독을 초대해 시네토크를 진행한다. 광주극장은 이날 방문하는 관객들을 위해 그림티켓 증정 이벤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성인 1만 원, 청소년 9000 원, 상영일과 회차는 극장 홈페이지 참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극장에서 진행되는 자크 타티 회고전. <광주극장 제공>

전국 최대 규모 광주은행 ‘광주화루’ 공모전

12~19일 접수... 10월 수상자 발표

현대한국화의 현재성을 돌아볼 수 있는 ‘광주화루’는 한국화 분야에 특화된 대표 공모전이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한국화 공모전으로 전통화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을 보여주는 작품부터 실험적인 작품까지 다채로운 작품의 경연장이다.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문화예술의 상생발전을 견인해 온 대표 문화사업인 ‘제7회 광주화루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7화재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한국화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12일부터 19일까지 접수한다. 응모자는 작품 포트폴리오를 광주화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10월 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은 나이와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한국화 작가에게 동등한 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며 심사과정은 ‘단독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하게 평가할 예정이다.

심사는 1차 작품 포트폴리오, 2차 작품, 그리고 3차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며 대상 1명(상금 3000만원), 최우수상 1명(상금 2000만원), 우수상 3명(상금 각 1000만원), 입선 5명(상금 각 200만원)을 선정하며, 총 10명에게 9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가들의 신작 20점은 오는 11월 광주은행



아트홀에서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4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광주은행 본점 1층 ‘광주은행 아트홀’에서는 광주비엔날레 기념전으로 역대 광주화루 작가 6인의 작품 50여점을 선보였다. ‘친숙하고도 낯선’ 주제로 열린 전시회를 통해 지역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예향 광주의 명성을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광주화루가 지역사회의 한국화에 대한 자긍심에 걸맞게 전국을 아우르는 공모전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공모전을 통해 광주가 한국화의 새로운 시선을 만날 수 있는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주화루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화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3 달빛통명 포크콘서트’ 22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달구벌과 빛고을이 기타의 선율로 통(通)한다. (사)광주민예총과 달빛포크협회가 주최하고 광주시가 후원하는 ‘2023 달빛통명 포크콘서트’가 오는 22일(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열린다.

달구벌과 빛고을의 앞 글자를 딴 이번 공연은 양 도시의 포크 음악 교류를 통해 동서 간 화합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갖고 기획됐다.

먼저 15일에는 달빛통명 포크버스킹이 이어진다. 오후 6시 품앗이공원에서 진행되는 공연에는 공성길, 여우비, 오명자, 정남호 등의 뮤지션이 자리를 빛낸다. 이어 22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포크콘서트는 대구팀에 기타타시모, 이내꿈(이리와 내 꿈에 태워줄게), 광주팀에 이광배, 이형주, 별밤친구들(곡순철, 이미랑, 한종면)이 무대에 오른다.

한편 달빛밴드도 무대에 올라 양 도시의 교류도 역할을 자임한다. 장혜란(건반), 양희범(기타), 조중현(베이스), 사군(드럼)이 연주할 예정이다.

무료 초대 공연, 자세한 내용은 광주민예총 전화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지구를 위한 그린플러그드 음악제 원재연 초청 독주회

21일 ACC예술극장 극장2

환경과 공존을 추구하는 ‘그린플러그드’ 축제는 공연 인터미션에 쓰레기를 줍는 등의 특색있는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에도 지구를 위한 음악제가 열린다. 이번 공연은 환경보호라는 취지도 좋지만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는 피아니스트 원재연(사진)을 초청한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제34회 광주음악제 ‘지구를 위한 그린플러그드 음악제-원재연 초청 독주회’가 21일 오후 7시 30분 ACC예술극장 극장2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광주음악협회의 초청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에미누엘 바흐, 모차르트, 리스트, 베토벤 등의 울려 퍼질 예정이다.

환경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행사 특성상 홍보물에 잉크, 종이를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QR코드와 온라인 홍보보를 통해서만 공연을 알

려,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음악협회 측의 설명. 출력물이 없는 만큼 홍보에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우수 프로그램으로 공연을 내실있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재연은 베트남의 천재적 피아니스트 ‘당 타 이 손’으로부터 ‘피아니스트 프로페셔널리즘’에 달한 천부적 재능의 소유자라는 찬사를 듣기도 했다. 케빈 케너, 조양 피레스 등에게 사사를 받았으며 유럽 등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원재연은 독일 쾰른 국립음악대학에서 공부했으며 2017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2016년 독일 칼로베르트 크라이텐 피아노대회, 2014년 제28회 스페인 페를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수상했다.

전석 3만 원. 티켓은 5일 오후 1시에 티켓링크에서 오픈 예정.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이슬아 작가 ‘2023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

이슬아(사진) 작가가 ‘2023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로 선정됐다.

에스24는 한 달간(6월 12일~7월 9일) 진행된 ‘2023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온라인 독자 투표에서 이슬아 작가가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총 40만3421명의 독자들이 참여했으며 이슬아 작가가 5만594표(9.4%)로 1위의 영예를 안았다. 투표는 첫 작품을 펴낸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16인의 젊은 작가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위는 4만5422표(8.4%)를 받은 이꽃님 작가가 차지했으며, 3위는 4만4493표(8.3%)를 얻



은 백은유 작가가 3위로 뒤를 이었다.

‘일간 이슬아’로 출판계의 이목을 끈 이슬아 작가는 ‘가녀장의 시대’ 등 작품을 통해 세상을 향한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슬아 작가는 “변방에서 나타난 저를 이토록 끝내주게 응원해 주시는 독자님들과 동시대를 산다니 마음이 벅차다”면서도 “창 밖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자라는 대나무처럼 계속해서 보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